

11명의 큐레이터가 만드는 비엔날레... 풍성해진 미디어 아트

미리 보는 2018 지역 문화계
빈 필 오보에 수석 등 스타 공연
전라도 천년 기념 창극 기획 중
동네 작은책방들 '북스테이' 관심

2018년 광주·전남 문화계는 어떤 모습일까. 올해는 지역 대표 문화 행사인 2018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해다. 또 새롭게 수장을 맞은 광주시립예술단체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새 예술감독의 의지가 반영된 작품을 올릴 예정으로 기대감이 높다. 그밖에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 클레멘스 호라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갖는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올해 광주·전남 문화계의 흐름을 미리 만나본다.

2018 광주비엔날레 개최

올해 지역 문화계의 가장 큰 이슈는 9월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2018년 9월 8일~11월 11일)다. 지난해 취임한 김선정 대표이사가 진두지휘하는 행사로 지금까지의 1인 예술감독 체제에서 벗어나 11명의 큐레이터들이 1~3명씩 팀을 이뤄 7개의 전시를 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로, 인류 역사와 사회적 정치적 환경 등의 경계에 있는 동시대 아티스트를 다채롭게 펼쳐낸다. 또 1995년 첫 비엔날레의 전시 주제였던 '경계를 넘어'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20여년의 시간 흐름 속에서 변화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시 장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확정됐으며 '오월 광주'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등 광주 지역 곳곳으로 확장되는 점도 특징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다수 큐레이터제의 장점은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해 보여주는 다채로운 전시다. 이번엔 선정된 큐레이터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 학자 등으로 그동안 지구촌의 역사와 정치적 현상, 이주, 난민 등의 경계 지점에 대한 전시 기획과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현재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큐레이터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의 제3세계권 전시 기획을 담당해 온 클라라 킵,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제임스 터렐 전시를 비롯해 굵직한 전시를 선보인 LA 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인 크리스틴 Y. 김 등이 대

표적이다.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을 통해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기획되었던 도시계획 프로젝트, 북한의 대형 집체화를 포함한 40점 이상의 조선화를 선보이는 북한 특별전, 20년 역사의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한 기획전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예술단체 공연 풍성

광주지역 시립예술단체들이 지난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2018년 새롭게 선보일 공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최태지 예술감독을 시작으로 3명의 거장들이 광주에 등지를 틀었다.

내년 시립발레단은 차이코프스키 명작시리즈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차례로 선보인다.

특히 '잠자는 숲 속의 미녀'는 시립발레단에서 처음으로 전막을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 유영애 예술감독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호 '심청가' 예능 보유자이자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창극단은 올해 창단 30주년인 만큼 창단특별 공연 및 정도(定道) 천년전라도 기념 브랜드 창극을 기획하고 있다.

광주의 여덟 번째 시립예술단으로 창단된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정갑근 예술감독은 2018년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1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4월)'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유명 클래식 연주자를 만나

광주시립교향악단은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를 초청, 협연무대를 갖는다.

1월25일 열리는 신년음악회에는 부주노공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라스프가 등장한다. 그는 몬테카를로 국제공쿠르(1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공쿠르(2위), 차이코프스키국제공쿠르(4위) 등 국제 유수의 국제공쿠르 13곳을 석권하며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다.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 클레멘스 호라이는 5월18일 특별음악회에서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을 연주한다. 그는 1989년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시작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 단원까지 20여년 동안 연주활동을 해왔다.

3월15일에는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오는 9월 열리는 2018 광주비엔날레는 1인 예술감독 대신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전시를 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2016년 광주비엔날레 행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를 연다. 이 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거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는 2월 26일 기획공연인 'NOVOS QUARTET: 노부스 콰르텟'을 무대에 올린다. 노부스 콰르텟은 솔리스트로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욱, 첼리스트 문웅휘, 비올리니스트 이승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레스피기의 '도리아 선법의 사중주 작품',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 12번 바장조 작품 96'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순풍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선정 5년째를 맞는 올해는 관련 행사들이 대폭 늘어나며 활기를 띠 전망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아트 융복합 콘텐츠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창의 랩'을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퓨처 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아티스트를 비롯해 기

술, 산업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또 미디어 338에서는 1월 중순 시작되는 '디지털 문'전을 비롯해 기획전과 공모전을 열 계획이며 미디어 아트 레지던시 등도 꾸준히 진행한다.

지난해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부대행사로 마련했던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에서 리움 등 7개국 8개 도시가 작가 교류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는 프랑스 앙기렘 레벵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할 계획이며 다른 도시 축제 참가 일정도 조율 중이다.

광주시립미술관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규모 '미디어아트 특별전'을 열고 지역 미디어 아트를 육성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미술관 공간을 1층까지 확장한 은암미술관은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현대미술 전시를 미술관 정체성으로 삼고, 지난해 지역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던 '감성과 디지털'전에 이어 올해도 미디어 아트 관련 전시를 준비 중이다.

책과 함께, 북스테이

북스테이(bookstay)는 말 그대로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피로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 지나친 경쟁과 실적이 매몰된 나머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광주시 수완지구에 자리한 동네서점 '숨'은 북스테이를 운영 중이다. 작은 서점이지만 광주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 등 의미있는 책들이 진열돼 있다. 책을 좋아하는 여행자나 작가, 문학지망생이 하룻밤을 쉬어가기에 좋은 공간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박이수 작가도 나주시 남평에 북스테이를 건립 중이다. 완공이 되면 창작을 위한 공간 겸 작가들과의 교류, 독서를 위한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문학을 좋아하는 누구나 찾아와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이곳에선 독서토론, 독회 등 소규모 문화 행사도 가능하다.

/김미은-전은재·박성천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올해 '아이다' 등을 무대에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선보인 오페라 갈라쇼 중 '춘향전'의 한 장면.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타라스프



노부스 콰르텟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